

■ 교육

대입 조기전형 이렇게 준비하자



개학과 함께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9월과 10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 여름방학동안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찾아봐야 하고 에세이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기전형으로 지원서를 접수해야 하는지 결정했다면 그에 맞춰 대입 원서를 작성을 준비한다.

필요하다면 대입표준화시험인 SAT나 ACT도 치르고 교사에게도 추천서를 부탁하고 칼리지보드에서 운영하는 학자금지원 프로파일 등록(CSS)도 시작한다

◆ 조기전형 vs. 정기전형

대입컨설턴트기관인 'IvyFocus' (ivy-focus.com)에 따르면 정기전형보다 조기전형 합격률이 높다 보니 조기전형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 중 입학 경쟁률은 학교의 자존심이다. 합격한 지원자가 많이 등록할수록 학교의 명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학교는 합격하면 등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지원자에게 좀 더 신경을 쓴다.

조기전형 지원자는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대부분 우수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 대부분의 대학은 조기전형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놓치기 아까운 지원자의 서류는 일반전형에 포함시켜 재검토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잘하면 같은 대학에 2번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전형이 정기전형보다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기전형의 또 다른 장점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다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데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 규모가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입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합격하면 졸업 때까지 학비를 얼마나 감당해야 하는지 잘 계산해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지원 전 점검 내용

조기전형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대입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에세이 작성은 물론, 필요하다면 SAT나 ACT도 치루고, 교사들에게 추천서 요청도 미리 부탁해 두어야 한다.

대입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원할 대학에 반드시 입학하고 싶은지 ▶지원할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지 ▶지금 학교 성적을 지원 대학에 제출해도 좋은지, 아니면 12학년 가을학기 성적까지 포함해 대학에 보여줘야 하는지 ▶에세이 작성은 끝났는지 ▶추천서는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이 중 한 개 항목이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정기전형으로 지원할 것을 권한다.

◆ 교사 추천서 & 대입 시험

칼리지보드는 조기전형 지원자들에게 추천서 내용을 방학 동안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권한다. 개학을 하면 정기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교사에게 추천서를 부탁하기 때문에 카운슬러 오피스가 매우 붐빈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추천서를 받고 싶은지 수상내역 등을 적은 서류를 준비했다가 개학한 후 곧장 제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진=shutterstock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Laguna Lake - Juanita Cooke Greenbelt Trail

플러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 중의 하나이다.

Euclid St.를 타고 북상하다가 Bastanchury Rd에서 우회전한 다음 Harbor Blvd 가기 전에 N Morelia Ave를 만나 좌회전, 즉 올라가면 Laguna Rd.를 만난다. Laguna Rd.를 건너면 트레일 헤드이다. 필자는 차를 Morelia 길에 주차하고 Laguna Rd.를 건너서 걷기 시작했다. 차들이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길 건널 때는 주의를 요한다.

트레일은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하얀 가로막이 세워진 곳에서 시작한다. 트레일 헤드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으며 걸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적혀있는데 상식적인 내용이라 따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 트레일은 Juanita Cooke Greenbelt Trail이다. 좌우로 주택들이 있으나 숲으로 가려져 있어 깊은 숲속을 걷는 느낌이다. 길 폭이 꽤 넓으나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좌우를 살피며 걸어야 한다. 아울러 길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어 슬리퍼나 구두를 신고 걷기는 불편하다. 걷기 편한 운동화나 등산화 신고 가기 바란다.



(Lakeside Dr.) 건너에 Laguna Lake가 보인다. 길을 건너 호수를 바라보며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호수를 한 바퀴 돌아오면 된다. 호수에서 낚시가 가능하며 16살 이상으로 캘리포니아 낚시 및 게임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만일 길가에 주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Laguna Lake Park(3120 Lakeview Dr., Fullerton, CA 92835) 주차장에 세우고 걷는 편이 좋다. 물론 트레일 헤드가 다르다. 주차장에서 걷기 시작해 호수를 만나면 위에 소개한 길과 만나게 된다. 위의 안내대로 걸으면 약 2.5마일, Laguna Lake Park 주차장에 세우고 걸으면 3마일이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 Open 8AM - 7PM
- ▶ 문의: (714) 738-6575

1마일 정도를 걸어가면 왼쪽 길



▲ Laguna Lake, 사진=타운뉴스

뉴스타부동산
리스팅, 바잉 & 1031 Exchange 전문
주택매매, 렌트/커머셜/비즈니스 및 인컴유닛 전문

플러튼 / 부에나팍 / 엘바인 / 다이아몬드 바 & 기타 OC 전지역

믿고 찾는 TOP 에이전트 "제이 김" 확실합니다 !!!

** 50만 - 60만 **	** 60만 - 70만 **	** 70만 - 80만 **	** 80만 - 90만 **	** 90만 - 100만 **
플러튼 \$54만 9천	플러튼 \$62만 5천	오렌지 \$74만 9천	부에나팍 \$80만 5천	플러튼 \$91만 9천
방2 화2 약 990 SQFT 이층 콘도, 한인 선호지역 조용하고 안정된 단지, 좋은 학교	방2 화3 약 1200 SQFT 이층 콘도, 2 차고, 마루바닥, 좋은학교, 유틸리티 포함된 관리비	방3 화3 약 1622 SQFT 2007년생 타운홈, 낮은 관리비, 2차고, 깨끗하고 예쁜 단지	방3 화2 약 1250 SQFT 단층 단독주택, 2 차고, 마루바닥, 환한 구조 넛츠베리팜 인근	방3 화2 약 1670 SQFT 단층 단독주택, 차고, 예쁜 뒷마당, 좋은 상권 조용하고 안정된 동네
오렌지 \$53만 9천	플러튼 \$60만	부에나팍 \$79만 9천	플러튼 \$89만	오렌지 \$98만
방2 화1 약 840 SQFT 단층 콘도, 낮은 관리비 Fwy 55번 인근, 밝고 환한 구조	방2 화2 약 1060 SQFT 단층 타운홈, 큰 단지 Move in condition 낮은 관리비, 2차고	방3 화2 약 1212 SQFT 단층 단독주택, 예쁘게 꾸며진집 사이프레스 칼리지 인근	방3 화2 약 1350 SQFT 단층 단독주택, 안정된 단지, 2차고, 좋은학교, 넓은 뒷뜰	방4 화3 약 2420 SQFT 이층 단독주택, 3차고, 마루바닥 넓고 환한 구조
라이브러 \$59만 9천	플러튼 \$69만	오렌지 \$74만 5천	스텐튼 \$84만 8천	플러튼 \$93만
방2 화2 약 1080 SQFT 이층 콘도, 1 차고, 대형 쇼핑몰 관리비에 물과 쓰레기 포함	방2 화2 약 1140 SQFT 단층 타운홈, 2 차고, 좋은 상권, 밝고 환한 구조 공원과 골프장	방3 화2 약 1300 SQFT 이층 타운홈 2차고, 부가 있는 유닛 Fwy 55번, 밝고 환한 구조	방3 화2 약 1670 SQFT 단층 단독주택, 2 차고, 마루바닥 밝고 환한 구조, 넓은 뒤뜰	방3 화2 약 1680 SQFT 아메리치 하잇 콘도, 마루바닥, 2차고, 좋은학교, 공원과 상권

제이 김 Jae Young Kim
DRE #: 02110841
Realtor®
C. 714. 948. 0638
Jaykim@newstarrealty.com

뉴스타부동산 명예 부사장
Member of CAR (California Realtor Association)
Member of NAR (National Realtor Association)